

# 2013년 5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 일시 : 2013.5.30(목) 12:00~13:30

## 1. 위원 주요 발언 내용

### ▲ 유능한 지방기자 적극 섭외했으면

- 방송기자는 어떻게 섭외를 하는지 궁금. 지방에도 유능한 기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방기자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지방 민방 기자들 가운데는 서울에서 살면서 지방에서 근무하는 기자가 많아 서울로 올라오고 싶어 하는 경우 많음. 다양한 뉴스보도에 맞추어 보다 많은 기자가 활동하는 것이 좋음(한박무 위원).
- 탈북출신 기자들이 칼럼도 쓰고 있고 네트워크도 빠름. 탈북자 출신기자를 적극 활용해야(한박무 위원).

### ▲ 연합뉴스 특종 뉴스Y로 연결돼야

- 연합뉴스와 뉴스Y의 융합이 중요한데 연합뉴스의 특종을 뉴스Y의 특종으로 연결시키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연합뉴스의 특종을 분석해 뉴스Y의 특종으로 모두 연결시킨다면 상당히 경쟁력 있는 매체가 될 것(홍승용 위원).
- 연합뉴스의 특종은 뉴스Y의 특종으로 대부분 연결되고 있음. 연합뉴스의 뉴스는 검증 절차가 불필요함. 타 매체의 뉴스는 검증을 해야 하지만 연합뉴스는 검증을 하지 않으므로 뉴스Y의 특종으로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장점(회사측 답변).

### ▲ 입학정보 제공해 광고매출 높여야

- 대학 입시홍보와 관련해 뉴스Y가 대학시장과 입시시장을 연결시켜 수요자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관련 정보(광고성)를 알렸으면, 뉴스Y가 입학정보를 준다는 이미지를 전달하면 좋을 것(홍승용 위원).
- 대학입시정보는 광고시장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을 것(한박무 위원).

### ▲ 모바일 겨냥해 젊은 층 타깃 확보해야

- 젊은 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쪽도 좋음. 젊은 층은 좋아하는 뉴스매체가 정해져 있지 않고 포털의 뉴스를 많이 보고 있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뉴스Y의 화면이 아니라 핫이슈나 본인의 관심사임(김경모 위원).
- 연합뉴스와 연관돼 있는 핫이슈 등을 전략적으로 분석해 광고할 필요가 있음. 인터넷의 정보검색과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면 좋을 것(김경모 위원).

### ▲ 개편 이후 시청자 반응 좋아

- 뉴스Y 자체프로그램은 어떠한지?(한박무 위원)

- 전체적으로는 개편 이후 내용이 충실해졌다는 소리를 듣고 있음. 회의에서 논의 됐던 내용은 달성했으며. 비시청 시간대인 8시에 스포츠 뉴스와 같은 볼거리가 많은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한 후 기대했던 것보다 나아지고 있음.  
현재 뉴스Y는 내용 변경을 비교적 쉽게 바꿀 수 있도록 시스템이 준비돼 있음 (회사측 답변).

#### ▲ 뉴스Y 개선 필요해

-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면 좋겠음.(이석구 위원)
- 앵커 진행 능력이 점차 노련해지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하지만 발음이 불명확한 앵커는 충분히 연습시켜야(최종준 위원).
- 뉴스Y가 지난 12월, 개국 1주년에 맞춰 14시간 동안 수화방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특정일이나 특별한 사안에만 수화방송을 하지 말고 앞으로도 꾸준히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방송을 했으면(최종준 위원).
- 요즘 각종 범죄나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뉴스가 매우 상세하게 범죄의 과정을 설명해주고 자극적인 장면을 여과 없이 내보내는 경향. 이는 모방범죄를 이끌어 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보도 필요(최종준 위원).
- 영상 뉴스는 음향과 조명이 매우 중요하고 영상과 기사가 매치가 돼야 생동감과 현장감 있어(김정연 위원).

#### ▲ 아이템 선정, 선점 중요해

- 최근 기획뉴스로 어린이집의 이슈를 터뜨려서 맞벌이 부부의 관심을 사고 있는 것처럼 눈을 땔 수 없는 아이টে을 구상해야하고 전문팀을 구성해 이슈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아이টে을 선점해야(김정연 위원).
- 원전사건을 예로 앞으로 대체 에너지와 같은 깊이 있는 문제를 다루면 어떨까 .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면 좋을 것(차경애 위원).
- 남북문제는 열린 눈으로 봐야. 그런 의미에서 5월 28일 "북한은 오늘"이란 방송 중 양무진교수와의 대담에서 큰 틀에서 자세를 가져야하고 정부보다는 민간차원에서의 대화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주장이 좋아(차경애 위원).
- 우리나라는 세미나 공화국. 국회 의정도 마찬가지. 이와 관련해서 뉴스Y가 독점으로 끌고 나간다면 큰 효과 기대(홍승용 위원). (끝).